

이콘에 대해서- 1

영원한 도움의 성모

영원한 도움의 성모' 이콘(성화)을 보고 있다.

우리는 평소에 영원한 도움의 성모 이콘은 눈에 너무 익숙해서 이 그림에 대해 전혀 이상함을 못느낀다. 대개의 이콘화는 우리의 눈에는 좀 잘못 그린 것 아닌가라는 정도의 생각만하고 그냥 지나치기도 한다. 현대에 사실적 성화 작품이나 사진에 익숙한 우리들의 눈으로는 그 그림자체가 미숙하게만 보인다.

일단 제일 먼저 성모님의 얼굴을 보면, 미간이 좁고 목을 길게 뻗고 있으며 자세도 불편해 보인다. 정면도 아니고 하늘을 보는 것도 아닌 성모님의 흐릿한 눈동자가 우리의 시선을 편하지(?)않게 한다. 성모님이 안고 있는 아기 예수도 얼굴이 필요 이상으로 작고 감정이 전혀 없으며 몸매의 비례가 성모님과 따로 떼어놓고 보면 어른의 비례와 같아 거인 성모님과 소인 예수님처럼 보여 어색하다. 전체적으로 위아래로 길쭉한 형상이 밋상 실력이 없는 이가 그린 것 같기도 하다. 여하튼 그림 속에 마리아와 예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 저기 판세상 사람으로 보인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이 성화를 다시 보고자 한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그림을 대할 때 그리거나 본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책을 대할 때는 쓰거나 읽는다고 한다. 그림과 책을 대할 때 동사를 당연히 구분해서 사용한다. 그러나 이콘(성화)을 대할 때는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다고 해야 마땅하다. (실제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이콘화를 읽는다고 표현한다) 이콘은 그린 것이 아니라 글을 쓰듯 화폭에 쓴 것이라고 여긴다. 왜냐하면 모든 이콘화에는 상징이 있으며 칼라도 지정되어 그 모두 일정한 원칙 하에 제작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읽지 않으면 알기 힘들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이 이콘화를 읽어본다.

먼저 이등변 삼각형의 구도로 안정적 인물 배치를 한다. 중앙은 물론 성모님과 아기 예수가 좌정해 있다. 배경은 황금색으로 천국과 영원을 상징한다. 성모님의 붉은 내의는 팔레스티나 전통적인 어머니를 나타내며 지극한 모성을 상징한다. 감청색의 두건과 겹옷은 하느님의 나라와 연결됨을 의미한다. 두건 위에는 평생 동정녀이심을 나타내는 별 모양이 그려진다. 그림 상 성모님의 얼굴이 부자연스럽게 옆으로 몰린 것은 소년 예수를 향해 있고 또 예수님의 후광을 나타내기 위해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예수님의 후광에는 필히 십자가 형상이 들어있다.



모든 예수님의 이콘에는 후광에 십자가가 들어 있으며 다른 인물들의 후광에는 없다. 예수님의 녹색상의는 성령을 의미하며 아래로 처진 금색 겹옷은 하늘나라를 상징한다. 예수님의 두 손은 아주 작게 그려져 성모님의 엄지를 꼭 잡고 있는 것이 구약시대 성전 제대 사방에 달아놓 황소뿔을 잡고 있는 듯하다. 필자의 해석이지만 구약시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성전 제대상의 황소 뿔을 잡고 있으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의미도 있지 않은가 생각해 한다. 아기 예수의 표정없는 얼굴에서 예수의 신성을 보여준다. 뒷배경에 그려진 두 천사는 미카엘과 가브리엘인데

미카엘 대천사는 예수님의 늑골을 찢은 창과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꿰어 입가에 댄 막대기와 신포도주를 담은 항아리를 들고 있다. 가브리엘 천사는 십자가와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은 큰 쇠못 4개를 들고 있다. 이를 본 아기 예수는 공포에 질려 어머니 품안에 달러가면서 너무 급한 나머지 오른쪽 신발이 살짝 벗겨져 매달린 것도 모른다. 다른 해석으로는 하느님 자녀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성모님께 고해 도움을 청하라는 의미라고도 한다. 이콘화 전체 중에 유일하게 감정을 들어낸 부분은 성모님의 손이다. 앞서 나온 얘기대로 성모님의 오른 손의 엄지는 아기 예수가 잡고 있고 성모님의 나머지 가늘고 긴 네손가락은 부드럽게 아기예수를 향해 '이분이 너희의 주님이시다'라고 제시해 주고 있다. 왼손으로 세심하게 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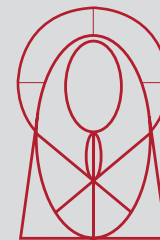
예수를 떠받든 모습은 아기 예수와 함께 하느님의 자녀들을 자애롭게 감싸는 성모님의 감정이 드러난다. 배경에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MP QY는 '하느님의 어머니' 그리고 ICXC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이제 모든 그림을 읽고 성모님의 눈을 찬찬히 응시해 보자. 성모님의 눈은 정면을 향해 우리를 보는 듯 하다. 그러나 좀더 보면 시선이 하늘을 향해 있는 것 처럼 보인다. 무표정한 모습이지만 두 천사가 들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져온 형구가 몹시 걱정스럽고 불안하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의 거룩한 자태는 이를 극복한 듯 미동도 없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동시에 인간 예수의 어머니이시기도한 성모마리아의 고난의 일생이 한 눈에 읽힌다.

한 장의 그림 속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메시지와 상징, 그리고 의미가 담겨 있다.

*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글/김웅배 안드레아

사순
제 3주일
2023년
03월 12일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10AM~3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사마리아 여인〉
4세기, 벽화
이탈리아 로마 비아 라티나 카타콤

〈 이번 주 전례안내 〉

- # 제 1독서 탈출기 17,3-7
- # 화답송 시편 95(94),1-2,6-7,11,12,7,12-9(◎ 7과 8)
-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5,1-2,5-8
- # 복음 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 당신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시니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소서.
- # 복음 요한 복음 4,5-42
〈숫아오르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
- # 성가 입당 119 봉헌 221 성체 498 파견 124

✿ 미사지향 (연미사)

- 배인호(스테파노) - 한상철(빈첸시오)
- 권숙자(요안나) - 노스에디슨 구역
- 이석종(스테파노) - 가족
- 추성태(바오로)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이규호 - 가족
- 한기석 - 한상철(빈첸시오)
- Joan Williams - 최 안토니아 가족

✿ 미사지향 (생미사)

- 염은미(클라라) - 가족, 백상현(요셉) 가정
- 김종숙(마리아) - 민 엘리자벳
- 오경선(원선시오) - 이희숙(테레사)
- 오용덕(헨리코) - 이희숙(테레사)
- 김성일(베드로) 가정 - 이서형(요안나)
- 육 클라라 - 성가대
- 염 세실리아 - 성가대
- 최지은(수산나) - 가족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161명).....\$1859
 - 교무금.....\$1,350
- | | | |
|----------|----------|----------|
| 염기선(3) | 박락준(3) | 최영옥(3) |
| 이용문(3) | 유병기(1-3) | 김삼식(3-4) |
| 황태진(3-4) | 백원선(1-3) | |

✿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 | |
|------------|-----------|
| 정영철(프란치스코) | 하건철(안토니아) |
| 오용덕(헨리코) | 오경선(원선시오) |
| 염은미(클라라) | 하준석(마태오) |
| 곽 율리안나 | 방진숙(테레사) |

✿ 사순절 의무사항

-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은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한다.
- 사순 기간 모든 금요일에는 금육재를 지킨다.
- 만 18세 ~ 만 59세 모든 성년자들은 금식재를 지켜야 한다.
- 만 14세 이상은 금육재를 지킨다.
- St. Patrick’s Day(3/17, 금)에는 금육재의 의무가 관면된다.

✿ 본당 관리 유지 현황

- 경당 전등 교체 완료
- Scaffolding Tower 구입(높은 천장 수리 및 전등 교체 용도)
- 스프링클러 점검 및 증설 계획 중
- 엘리베이터 점검 실시(업체; Schindler) 후 고장 원인 파악중에 있으며 다각도로 수리 계획 진행 중
- 친교실 주방내 오래된 그릴과 스토브 처리 중
- 친교실 주방 가스관 밀봉 처리 완료
- 성모 정원 후원자 명패 설치 계획 중

✿ 에디슨 한인 공동체에 새로 오신 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 2차 헌금

- 3월 12일: 유틸리티
- 3월 26일: 부활절 꽃 장식

✿ 제임스 체키오 주교님 미사

- 3/26 주일 (사순 제5주일) 10시 30분
- 제임스 체키오 주교님께서 우리 성당에 오시어 현지 공동체와 함께 미사를 봉헌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기도부탁드립니다.

✿ 2023년 3월 매일 미사책을 신청하신 분은 성당 입구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기도 안내

- 사순시기동안 매 주일11시부터 십자가의 길 기도가 있습니다

✿ 2023 Bishop’s Annual Appeal (Renewed and Sent on Mission by the Eucharist)

- 2023년 목표금액은 \$37,000입니다. 목표금액 달성시 초과금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되며 3/3까지 약정 금액은 \$11,766.14 (목표금액의 31.8%)입니다.
- 3/18-3/19 는 In-Pew Weekend입니다. 성당 좌석에 비치된 BAA 약정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장에게 주시면 교구청으로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메타천 교구내의 사목, 교육,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2023 Bishop’s Annual Appeal 에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예비자 교리 모집

- 예비자 교리반을 곧 시작합니다. 예비자 교리에 관심있으신 분들께서는 사무실 또는 교육분과장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 허정 교육분과장 732-718-4569 / 사무실 732-258-5998

✿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3월 12일(주일) 친교실

✿ 썸머셋 구역 모임

- 일시 및 장소: 3월 19일(주일) 친교실

✿ 피스브릿지 구역 모임

- 일시 및 장소: 3월 19일(주일) 친교실 회의실

✿ 레지오 마리에 아치에스 행사

- 일시 및 장소: 3월 26일(주일) 미사 후 성당
- 레지오 마리에의 가장 중요한 연중행사로서, 협조단원분들과 레지오에 관심 있으신 모든 교우분들을 초대합니다.

✿ 2023년 2차 정기 요셉회 모임

- 일시 및 장소: 3월 26일(주일) 친교실 회의실

✿ 미혼모 및 노숙자 가정 아이들을 위한 육아용품및 장난감 기부

- 뉴브런스워 럽거스 가톨릭 센터에서 미혼모 및 노숙자 가정을 돌보는데 필요한 육아용품 및 장난감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 깨끗한 장난감, 교구, 책, 옷들을 나이별로 잘 정리하여 3/12(주일) 까지 자모회장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 한지혜(크리스티나) 자모회장 718-431-3018

✿ 탈출기 17,3-7

그 무렵 백성은 3 목이 말라, 모세에게 불평하며 말하였다. “어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소?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랬소?”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원로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가거라. 나일 강을 친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렘의 바위 위에서 네 앞에 서 있겠다. 네가 그 바위를 치면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와, 백성이 그것을 마시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비하였다 해서,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짜와 트리바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요한 4,5-42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길을 걷느라 지치신 예수님께서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으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나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나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렀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으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르대로 말하였다.”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서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또는 “저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리하여 그들이 고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 왔다.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스승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시자, 제자들은 서로 “누가 스승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길라도 하였다는 말인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너 달이 지나야 수확 때가 온다.’ 하고 말하지 않느냐?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 때가 되었다. 이미 36 수확하는 이가 샅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을 거두어들이고 있다. 그리하여 씨 뿌리는 이도 수확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 과연 ‘씨 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가 애쓰지 않은 것을 수확하라고 너희를 보냈다. 사실 수고는 다른 이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여자가 “저분은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들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5,1-2.5-8

형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나약하던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에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의로운 이를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